

손흥민 “우리도 할수있다, 11명이 12명처럼 된다면”

대한민국 최약체 인정 “조별리그만 통과해도 자랑스러울 것”
 “다른 팀들보다 실력 안 좋으면 두발 더 뛰면 이길 수 있다 생각”

생애 두 번째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은 한국이 최약체임을 인정하면서 “조별리그만 통과해도 우리 팀이 충분히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15일 용산 아이파크몰의 아디다스 더 베이스 서울 풋살장에서 열린 아디다스와의 후원 연장 계약 조인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손흥민에게 2018 러시아월드컵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꿈의 무대다. 처음 나선 4년 전 브라질월드컵에서 골맛을 봤지만 팀은 1무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은 “2014년은 기대와 자신감이었으면 2018년은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최약체라고 생각해야한다. 월드컵을 뛰어본 결과 자신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닌 것 같다. 나부터 그러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잘 인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성적을 예상해달라는 요청에 잠시 침묵한 손흥민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망신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브라질월드컵에서 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되게 창피했다. 나라를 위해 나갔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을 정도

였다.” 손흥민은 “우리는 조별리그만 통과해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로 간절하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스웨덴, 멕시코, 독일을 상대한다.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16강 진출은 커녕 승점 얻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손흥민은 전력이 차이는 있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상대보다 많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가 다른 팀들보다 실력이 안 좋다면, 두 발 더 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두 발로 하는 경기다. 퀄리티의 차이는 있다. 그것을 멘탈과 피지컬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뛰고 도와주는 것이다. 팀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11명이 12명처럼 뛰어나면 우리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20여분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4년 전 과오를 만회하고 싶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가 에이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팀이 특별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색을 갖고 경기장에 나갔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관심) 부담스럽진 않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모이면, 다른 선수들이 그것을 이용했으면 한다. 나는 부담을 갖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브라질에서 서럽게 울었던 손흥민은 러시아에서는 웃는 일만 있길 희망했다. “나는 항상 사람을 만나도 웃으려 노력한다. 일이 벌어져도 그렇다. 대표팀에 오면 눈물을 보이는 것 같다.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손흥민은 “눈물을 보이는 것이 솔직히 창피하고 죄송스럽다. 국민들이 내가 웃는 사진을 보면서 웃는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2017~2018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 18골(리그 12골) 11도움(리그 6도움)으로 지난 시즌 세운 개인 최다 공격포인트(21골 7도움)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리그 막판에는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발목 통증을 6주 가량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손흥민은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경험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후반기에는 지쳤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상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풋살 경기장 '아디다스 더 베이스 서울'에서 열린 아디다스-손흥민 선수 후원 연장 계약 체결 및 월드컵 진출 소감 발표에서 손흥민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 임하는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아디다스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온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15년간 아디다스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당히 지쳐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축구 선수 중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통제 먹지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쉬면서 발목도 회복하면 폼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대표팀에서는 기성용(수원지)과 호습이 기대를 걸었다. 가장

호습이 잘 맞는 선수를 지목해달라고 하자 “한 선수만 꼽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성용 형은 3선에서부터 좋은 패스를 넣어주려고 한다. 성용 형과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구)차현 형 같은 경험 많은 선수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손흥민은 “걱정을 하는 것은 당

연하지만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금 이른 것 같다. 선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응원도 필요하다. 응원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해달라면서 “조금 더 힘을 주면 선수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다들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성원을 청했다.

KIA 양현종, 무사구 기록 348이닝에서 중단

지난 15일 넥센전 시즌 첫 · 2년만에 시구



KIA 최완 양현종의 무사구 신기록이 중단됐다. 양현종은 15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

그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등판해 첫 타자의 몸을 맞춰 출루시켰다. 시즌 첫 시구이자 2년 만에 나온 시구였다.

양현종은 1회말 선두타자 김규민을 상대로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진 볼을 던졌다. 이어 3구째 던진 볼이 몸쪽으로 슬라이딩하며 몸을 맞쳤다. 양현종의 348이닝 무사구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타자로는 1460타자까지 맞히지 않았다.

양현종의 무사구 행진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광주 LG전에서 시작했다. 당시 선발투수로 나서 2회 초 1아웃 1.3루 상황에서 상대 7번 타자 이병규(현 롯데)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준 뒤 전날까지 무사구 투구를 해오고 있었다.

지난 4월 13일 광주 롯데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 1회초 상대 1번 타자 전준우와 2번 타자 김동현을 범타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3120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하지 않아 최장이닝 무사구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신동수 KIA 퓨처스 투수 코치가 기록한 311이닝이었다.

프로농구 FA 최대어 최진수 · 조성민, 소속팀 잔류



최진수



조성민

최진수 6억5000만원 · 조성민 5억원에 각각 계약

문태중 · 전정규 등 23명 원 소속팀과 협상 결렬

프로농구 자유계약(FA) 최대어 최진수가 원 소속팀 고양 오리온에 남는다. 오리온은 15일 FA 최진수와 5년, 보수 총액 6억5000만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최진수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50경기에서 평균 11.8점 3.7리바운드 2.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2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최진수는 내외곽 플레이가 모두 가능하고 스피드도 겸비해 활용도가 높은

포워드다. 특히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200cm로 제한해 최진수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됐다.

원팀 LG에서 FA가 된 조성민(35·189cm)도 보수 총액 5억원 계약 기간 3년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시즌 보수 총액 4억5000만원을 받은 조성민은 50경기에서 25분 46초를 소화하며 평균 7.64득점 2.1리바운드 1.8어시스트의 성적을 냈다.

포항 스틸러스 김승대, K리그 13라운드 MVP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김승대가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13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김승대는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포항의 K리그 13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장했다. 전반 1분 만에 포항의 이근호와 합작해 선제골을 뽑아낸 뒤, 시종일관 공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좋은 활

약을 펼쳤다.

양팀 합쳐 23개의 슈팅이 터지며 화려한 양상을 보인 이 경기는 보다 효율적인 공격을 펼친 포항의 3-0 승리로 돌아갔다. 포항에서는 수비수 알레망과 골키퍼 강현무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서는 제리치(강원)와 마그노(제주), 베스트

IG는 기승호(33·194cm)와 보수 총액 1억2000만원, 계약기간 2년에, 양우삼(33·185cm)과 보수 총액 1억5000만원, 계약기간 2년에 재계약했다.

가드 진태풍(38·180cm)은 계약 기간 1년, 보수 총액 1억8000만원에 전주 KCC에 잔류했다.

지난 시즌 2억원의 보수를 받았던 진태풍은 부상 속에 35경기 출전에 그쳤고, 평균 7.74득점 2리바운드 3.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KCC는 이현민(35·174cm)과도 보수 총액 1억8000만원, 계약기간 1년에 도장을 찍었다.

부산 KT에서 FA 자격을 얻은 센터 김민욱(28·205cm)은 계약기간 5년, 보수 총액 2억6000만원에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다.

KT는 박철호(26·197cm)와 3년, 보수 총액 1억6000만원에, 김현수(28·183cm)와 3년, 보수 총액 1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FA 47명 가운데 18명이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했다.

반면 베테랑 슈터 문태중(43·199cm)은 오리온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단이 2억원을 제시했지만 문태중은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전정규(35·187cm)도 오리온과 계약하지 못해 시장에 나왔다.

문태중을 비롯해 원 소속구단과 협상이 결렬된 23명의 선수는 16일 FA 공시 후 21일까지 타 구단의 영입의향을 기다려야 한다.

뉴스

“강정호 언제 빅리그 복귀하나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빅리그 복귀를 준비 중인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빅리그 합류 시점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현지 피츠버그프스트가제트 신문과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독자와의 질의응답 코너에서 강정호의 합류시점을 전망했다.

트위터로 피츠버그프스트가제트에 “강정호가 언제쯤 복귀할 수 있나. 몇 번 타순에 들어서게 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 블룸 기사는 “강정호가 플로리다주 브래들턴의 피츠버그 훈련장에 합류해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지 약 2주 밖에 되지 않았다. 빅리

그로 복귀하려면 아직 몇 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닐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서 하트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거쳐 수일 또는 수주 내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연습장에 나타난다. 강정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블룸 기사는 “3루수 폴린 모런과 유격수 조디 머서가 7, 8번 타순에 배치된다. 강정호가 이들 대신 선발 출전 기회를 잡으면 이들이 들어서던 타순에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LB닷컴의 애덤 배리 기사는



강정호의 현실적인 합류 시점 질문에 “직접만 한번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최소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짐작했다. “통상적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는 6주 동안 진행된다. 2016년 10월 이후 빅리그 경기에 나선 적이 없는 강정호는 라이브 배팅 단계에 있다”며 “5~6회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90일까지 가늠하도록 키우는 중이다. 최종적으로 매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체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